

바벨탑 문제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 복음으로 여는 창세기 8-4바벨탑사건 -

창세기 11:1-4, 요한계시록 18:1-4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시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 판단을 모두 바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 수준, 표준으로 거듭나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정확하게 성취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메시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과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류역사의 기원과 복음적인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벨탑사건이다. 오늘은 바벨탑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1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복음적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내용이 있다. 세계사와 성경에 보면 각각 다른 세 가지 시대에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 이 세 시대를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벨탑시대이다.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들이 최초로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시날 땅 중에 바벨이라는 지역에 이 탑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 탑이 건설된 시기는 약 4천100년 전이다. 이때는 노아의 홍수 이후 약 100년이 조금 지난 시대이다. 바벨탑은 노아의 후손이 지었다. 노아는 600세의 홍수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350년을 살았다. 노아는 새로운 시조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 노아는 후대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후대에 대한 언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구 바벨로니아이다. 구 바벨로니아는 아브라함보다 약 100년 뒤에 등장하는 나라이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 우리들이 들어본 사람이 함무라비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이다. 이 시대를 구 바벨로니아라고 한다. 수메르문명이 꽃피웠던 때이다. 세 번째는 신 바벨론이다. 신 바벨론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벨론이다. 신 바벨론을 세운 왕은 느부갓네살이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민족은 세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모든 시대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상징이고 사탄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탑에 대한 성경의 내용과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1.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서 바벨탑사건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다.

(1)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라고 시작한다. 여기서 언어란 히브리어로는 입술, 영어로는 ‘one language’이다. 왜 입술일까? 입술의 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는 농인들이 있다. 입술이 하나라는 의미는 한 언어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구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11장 1절을 보면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말이란 영어로 ‘one speech’이다. 이로 보건대 바벨탑 이전에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은 의사소통과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고 결국은 분열된다. 서로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참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한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서 바벨탑을 완성할 수 없었다. 바벨탑을 건설을 주도한 인물은 함의 손자, 구스의 여섯 번째 아들 니므롯이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니므롯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니므롯은 아무 용맹한 사람이었다. 여러 도시와 성을 니므롯이 지었다.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 니느웨를 만든 사람이 니므롯이었다. 결국에는 니므롯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밋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이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구절은 없다. 그러나 성경을 보았을 때, 그 나라를 만든 사람이 니므롯이었기 때문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었다고 보는 것이다. 니므롯의 부인인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이 죽자 태양신을 처음 만들었다. 니므롯이 환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 아들 담무스라고 한다. 세미라미스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지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 영적의 흐름이 바벨탑 사건에 있는 것이다.

(2) 창세기 11장 2절이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는 노아의 방주가 안착한 아라랏 산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는 유브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즉, 메소포타미아 평원지대를 가리켜 말한다.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하고 이 지역을 역사학자들은 수메르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곳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착한 이유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인가, 아니면 먹고살기 위한 중심인가? 성도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노아의 방주처럼 성령인도 따라가며 교회중심, 말씀중심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서밋타임이 필요하다.

(3)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당시 벽돌을 발견한 것은 대단한 발견이었다. 그런데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조금만 성공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 만드는 것은 보잘 것 없는 발견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작은 것 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까지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컴퓨터, 인공지능, 유전공학, 우주항공 등이 대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소로운 수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

다. 그리고 지금도 과거의 바벨론지역에 가면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어진 많은 벽돌탑(지구라트)을 볼 수 있다.

(4) 창세기 11장 4절이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인간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바벨탑만 건설한 것이 아니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 성읍이란 도시문화를 의미한다. 인간들의 모든 문제는 도시문화에서 발생되어졌다고 사회학자들도 말하고 있다. 바벨탑을 세운 인간들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 세 가지가 창세기 11장 4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다. 첫 번째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이다.

(5)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인간들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을 보겠다.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라고 나온다. 창세기 11장 8절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도시와 탑이 건설된 지역을 성경에서는 바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11장 9절을 보겠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바벨'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뜻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혼잡케 하셨다'를 뜻하는 발랄(balal)의 어원이 '밥 일리'에서 왔다고 보는 입장이다. 성경은 이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장은 '바벨'이란 수메르어 명칭 카딩길라(ka-dingir-ra)를 번역한 것으로 바벨의 뜻은 '신의 문'을 의미 한다고 보고 있다. 한양을 서울이라고 하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바벨에서 언어가 어떻게 나뉘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전 세계의 언어가 과거에는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연구한 많은 언어학자들의 의하면, 다양한 인간의 언어들은 궁극적으로 공통 어원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비교 언어학자이며 옥스퍼드교수였던 막스 밀러는 고대의 언어들을 연구하여 그것들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관찰하였다. 즉, 모든 언어의 뿌리는 하나라는 말이다. 이는 인류의 모든 언어는 하나에서 나뉘어졌다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로 증명되는 연구가 되는 것이다.

2. 지금 인간들이 세우고 있는 바벨탑의 종류와 그것들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언약의 백성들이 쌓아야 할 탑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다.

(1) 먼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문제가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길로 가고 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모든 무속행위를 그 곳에서 한 것이다. 왜 새들이 모이는가? 인신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죽고 남으면 피와 살이 남는데, 새가 먹으려고 모인다는 것을 뜻한다. 18장 3절이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쾌락과 물질중심의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내 백성이여,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2)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세우고 있는 바벨탑의 종류들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찾아보겠다.

① 인간들은 지식의 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공부 부를 조금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 않는다.

② 인간들은 이념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다. 이데올로기, 철학, 신념, 주장, 정의, 윤리, 사상,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이다.

③ 과학의 탑을 세우고 있다. 금융, 주식, 화폐, 환율, 무역 등 자본주의의 탑을 세우고 있다. 이것으로 백성들을 노예화 시키고 있다.

④ 건설의 탑을 세우고 있다. 종교와 우상과 이단의 탑이 너무나도 많다. 개인들은 나 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다.

(3) 우리들이 세워야 할 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사탄이 세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구원의 방주의 짓고 새로운 탑을 세워야 할 것이다.

① 오직 그리스도의 탑을 세워야 한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

② 중직자들은 원니스가 되어 3단계를 능가하고 살릴, 3기업의 탑을 쌓아야 하겠다.

③ 다음 시대를 살릴 램넌트의 탑을 쌓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한 램넌트로 서도록 도와줘야 한다. 전도가 되어지는 램넌트로 양육해야 한다. 가정, 가문을 살리는 램넌트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살리는 램넌트로 잘야 한다.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램넌트로 성장해야 하겠다.

④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 문화, 과학을 복음으로 살릴 3서밋의 탑을 쌓아야 하겠다.

오늘은 바벨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CVDIP를 찾아보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언약은 인간들의 성공을 위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작은 탑을 세우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탑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237나라의 백성들에게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이 24시간 복음의 탑을 세우는 일에 원니스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집중하여 기도하는 서밋타임을 가져야 한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나의 바벨성과 바벨탑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완전복음으로 그것을 무너뜨려보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바벨탑의 삶이 아니라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영생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원니스 되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아 현장을 살리는 말씀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